

## 여성은 왜 괴물로 형상화 되어왔는가?

바바라 크리드,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최애영 \*

바바라 크리드(Barbara Creed)의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sup>1)</sup>은 여성괴물이 주인공인 공포영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페미니즘 연구이고 이론적인 논의의 장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그 중에서도 특히 ‘거세’ 이론이다. 원제목은 *The Monstrous-feminine. Film, feminism, psychoanalysis*(London : Routledge, 1993)이며, 한국어 제목에 등장하는 ‘억압과 위반 사이’는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크리드는 “가부장적이고 남근중심적인 이데올로기 안에서 구성된 여성 괴물성의 개념”이 “성차와 거세의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23)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여성괴물(female monster)’을 ‘남성괴물(male monster)’과의 생물학적 대비에서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치환시킴으로써, 젠더의 관점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남성괴물’의 반대말인 ‘여성괴물’ 대신 ‘괴기한 것-여성적인 것(monstrous-feminine)’이란 두 형용사를 표제어에 나란히 내세움으로써, 여성성과 괴물성의 밀접한 관계

---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바바라 크리드,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손희정 옮김, 도서출판 여이연, 2008. 앞으로 이 책 인용문의 출처는 괄호 안에 숫자로 단순 표기한다.

의 내막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또한, 이 형용사적 표현은 비록 이 책에서 ‘여성괴물’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의 본성이라 믿고 있는 통상적인 인식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가치 판단이 빚어낸 ‘이차적’ 속성일 뿐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 책은 가부장제 전통 속에서 여성이 신성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마로 종종 취급되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여성을 법의 경계 너머에 위치시키고 악마나 괴물로 형상화하는 서구의 뿌리 깊은 상상력에는 여성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이 내재한다는 가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저자에 따르면, 여성괴물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무의식적 토대를 드러내주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주체가 유아기에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성심리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책은 이와 관련된 프로이트의 ‘거세 콤플렉스’ 이론의 재점검을 통해, 프로이트가 어머니의 역할과 입지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정신분석의 이론체계를 뒤흔들어 보려는 조금은 도발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책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부는 여성괴물의 이미지나 그것이 형상화되는 재현방식들, 혹은 서사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면서, 여성의 괴물성이 끔찍하도록 역겹고 비천한 형상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여성괴물의 형상은 충만한 자궁에 동일시되는 ‘원초적인 어머니(archaic mother)’의 재현이라는 해석을 내린다. 즉 이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 담고 있으므로 아이와의 존재 경계가 없고 따라서 불순한 혼돈의 세계를 표상하는데, 이것은 아이를 집어삼킨 위협적인 ‘거세자’ 어머니의 상상이 만들어낸 공포의 산물이다. ‘거세하는 어머니’의 억압으로 가부장적 ‘상징계’ 법질서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자궁에 동일시되는) 어머니의 육체를 동물적이고 비문명적인 것으로 비하하고, 법을 유지하기 위해 끔찍한 여성괴물 형상들을 전략적으로 빚어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

는 질서와 순수의 경계를 법으로 내세우는 ‘상징계’의 질서 맞은편에, 어머니의 위력을 정면으로 대립시킨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2부에서 정신분석의 ‘거세’ 이론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거세된 어머니’를 공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프로이드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인데, 저자는 프로이드가 오직 아버지만을 거세자로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세하는 어머니’를 억압하고 ‘남근 중심적’ 이론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정신분석 이론 또한 ‘남성’ 프로이드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것이다. 정신분석이 ‘거세’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팔루스’<sup>2)</sup> 개념을 중심축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조직된 이론체계인 것은 틀림없으며, 이것은 크리드가 인용한 미첼의 글이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프로이드에게 정신분석학이 남근중심적인 이유는, 정신분석학이 개인 주체를 통해 굴절시켜 관찰한 인간 사회의 질서 자체가 남근중심적이기 때문”이며,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이의 이자적인 반사회적인 관계를 깨야만 하는 제 삼자의 위치를 대신”(297) 해왔다는 것이다. 즉, 정신분석 이론이 ‘남근 중심적’ 가부장제 질서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자율적인 욕망 주체의 형성과 사회화를 위해 요구되는 어머니-아이의 관계 단절을 표시하는 구조적 분절지점에서 제 삼자로서 아버지가 수행하는 역할 때문이다. 저

---

2) 이 책의 역자는 ‘phallus’에 상응하는 한국어로 ‘남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여성주의적 입장을 반영하는 이 책의 단호한 어조를 잘 반영하는 선택일 수 있다. ‘팔루스’는, 비록 남근숭배의 종교적 전통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중립적인 개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근’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만큼, ‘팔루스’를 ‘남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자칫 남성에 국한된 함의를 지니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다만, 유아 성심리 형성단계의 하나인 ‘남근기(phallische Stufe)’의 경우는 해부학적 가시성에 근거하여 ‘페니스’의 유무에 따라 남녀 성차이가 인식되는 특정 시기를 가리키므로 이 용어를 ‘남근기’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크리드는 프로이드가 밝혀낸 ‘유아의 성이론’의 정신분석적 설명 자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다.

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거세하는 어머니’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미첼의 생각을 서둘러 인용하는데, 이 태도는 그의 논지가 균형을 상실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그는 학문적 이론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애초에 뒤섞어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이한 차원의 논지를 한 공간 안에 뒤섞는 방법상의 미숙함을 범하고 있다.

어쨌든 프로이드의 ‘거세’이론에 대한 저자의 반론은 기존의 공포영화 연구의 입장과 거리를 둔 그의 이론적 차별성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괴물에 의해 표상되는 거세자로서의 여성 이미지가 무시되고, 영화에 대한 여성주의 글들이 “여성의 욕망에 대한 질문과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근적 재현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르들에 대해서만 언급”(284)해왔는데, 그의 진단에 따르면, 그것은 여성주의 정신분석 비평이 프로이드 이론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거세되었기 때문에 공포를 유발” (31)한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머물러 있는 한, 여성주의 연구는 여성을 ‘거세된 자’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방치하고, 남성괴물의 희생자나 그 일부로만 여성괴물을 취급해 오던 기존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여성/어머니의 거세, 나아가 거세 개념 자체에 대한 저자의 이해와 입장이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얼마나 타당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남성이 여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성이 거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거세당하지 않았기 때문”(29)이라는 수잔 루리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다. 그가 보기에, “거세당한 여성”이 아닌, “거세하는 타자”(30)로서 남성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여성형상은 능동적이고 ‘권위’ 있는 여성의 입지를 세우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깔려있다. 도대체 왜 그러한 능동적인 ‘여성의 권위’가 괴물로 표상되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여성의 신체

는 두렵고 위협적인 섹슈얼리티의 형태를 재현하는 생물학적 기형으로 묘사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크리스테바의 이론에서 영감을 받는다. 크리스테바는 『공포의 권력』<sup>3)</sup>에서 정신분석적 지식을 배경에 깔고, ‘비천체(卑賤體)’, ‘비체(卑體)’로 번역되는 ‘비천한 것(l’abject)’의 개념과, 주체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통합시키는 대신 자신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고 배출해버리려는 물건의 속성이나 그러한 배출과정을 가리키는 ‘아브젝션(abjection)’<sup>4)</sup>이란 개념을 이론화 했다. 한마디로 이것은 정체성, 체계, 질서를 흐뜨리는 것이다.

크리드는 공포영화의 괴기성과 여성괴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장르 역시 섹슈얼리티 및 여성의 ‘아브젝션’이 어떻게 가부장적인 ‘상징계’ 질서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sup>5)</sup>(284)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는 크리스테바의 이론에서, 극단적 비하(卑下) 과정이 어머니의 힘을 ‘상징계’의 질서에 굴복시키는 것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피고, ‘아브젝션’ 이론에서 특히 ‘경계’, ‘어머니-아이의 관계’, ‘여성 신체’의 세 개념만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자신의 이론적 전개 of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성이 혐오대상으로 전락하는 배경을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Horror’라는 단어가 ‘공포’를 의미하는 동시에 ‘끔찍하다’라는 혐오감과 거부감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여성괴물 형상을 혐오스럽고 역겨운 ‘비천함’과 연상시키는 관점은 꽤 흥미롭다. 비록 ‘거세하는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 환상이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3)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서민원 옮김, 동문선, 2001 (Julia Kristeva, *Pouvoirs de l'horreur*, Seuil, 1980).

4) 위의 크리스테바 책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프랑스어의 발음을 그대로 존중하여 ‘아브젝시옹’이라고 번역했지만, 크리드의 책에서는 영어 발음을 차용하여 ‘아브젝션’으로 번역했다. 이 개념이 크리스테바의 것이므로, 그 의미로 풀어서 설명체로 번역하지 않는 이상, ‘아브젝시옹’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혐오스런 여성괴물 형상이 남성 주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온 배경을 파헤치려는 여성주의 입장은 이 책이 출간되던 1993년 무렵에는 나름 흥미롭고, 어쩌면 용기를 필요로 하는 발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무시무시한 어머니, 끔찍한 괴물 같은 어머니에 대한 언급 자체를 여성 비하적이라는 이유로 맹비난만 하던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없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 밖으로 흘러내리는 수수께끼 같은 월경혈은 역겨운 오염물질의 배설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을 ‘비천한’ 존재로 격하시키고 끔찍한 괴물로 재현하는 데 중요한 신체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생명 잉태의 가능성을 알리는 동시에 치명적인 상처와 죽음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혼돈의 위기를 내포한다. 생명과 죽음의 위태로운 경계는 육체가 얼마나 쉽게 상처 입을 수 있고 완전함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를 일깨우며, 정돈된 법질서의 안정성 전체가 위협받는 위기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의 위기는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서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경계의 모호함을 떠올린다. 내부에서 싹틔우고 키우고 오랫동안 품었던 자궁-어머니의 생산물인 아이는 탯줄이 잘린 다음에도 한동안은 구순기적 활동을 통해 어머니와 생물학적으로 융합 관계를 연장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상징계’의 법질서 속에 편입되어 독립된 주체로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아이는 어머니와의 관계 단절을 점차적으로 밟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분리 과정에서 아이는 융합 관계 속에서 자신과 분리되지 않은 채 자신의 몸 안에 남아있던 어머니를 오염물질로 비하하고 자신의 경계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저자에 따르면, 가부장적 전통 속에서 특히 월경혈이나 임신한 여성의 몸을 불결하고 불길한 것으로 비천시하는 경향은 여성의 몸이 가부장적 ‘상징계’ 법질서의 “나약함”(162)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분리시키고

온전한 자율성을 지켜주는 경계의 위기를 공포와 연결짓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팔루스적 어머니’의 환상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관점으로 보인다.

그런데 젠더 연구의 관점에서 출발한 그의 담론은 이러한 분석을 정치적인 해석으로 발전시켜야만 완성될 수 있다. 그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분리와 분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 법의 실패를 괴물성의 재료로 삼고”(83) 있다고 강변한다. 이렇게 어머니-아이의 문제가 이데올로기의 차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무의식은 너무도 의식적인 정치적 차원으로 환원된다. 즉 공포영화의 대중적 담론에서 여성이 괴물로 재현되는 것은 “공포영화의 이데올로기적 기획의 작용”이며, 이 기획은 “남성의 성적 타자인 여성의 차이와 그녀의 괴물 같은 본질이 별수 없이 묶여 있다는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 디자인 되었을 뿐”(162)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관점은 논지 전개에 있어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공포영화의 무의식적 기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무의식이 젠더 사회화의 구속에 복종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공포영화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 인간 주체(고통, 신체적 공격, 붕괴, 죽음)와 젠더화된 주체(여성의 재생산 역할 및 거세에 대한 남성의 공포와 남근적 공격성과 강간에 대한 여성의 공포) 모두의 무의식적인 공포와 욕망을 폭로하면서 무의식에 말을 건다.(290~291)

여기서 우리는 무의식이 의식세계의 정치와는 무관하며, 공포영화가, 제작자에건 향유자에건, 주체의 무의식적 욕망과 공포를 환상 속에서 되살게 함으로써 젠더화된 주체에게 문명 속에서 느끼는 거부함을 해소시켜 주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말을 엿들 수 있다. 공포영화의 제작

과 향유 효과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각각 다른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각자에게 다른 중요한 무의식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크리스테바의 말을 빌려 “역사적으로 비체를 정화시키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었지만, 이런 종교의 ‘역사적 형태’의 붕괴로 이제 정화의 과정은 ‘예술이라는 위대한 카타르시스’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공포영화는 상징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와 어머니의 세계가 의미하는 모든 것은 상징계적 질서로부터 분리”(44-45)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대중 공포영화의 핵심적인 정치적 목적”, 즉 “상징계적 구조의 토대로의 전략”을 통한 비체의 정화”(44), 다시 말해 어머니의 억압 위에 세워진 ‘상징계’ 질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단언하는 데 있다. 이렇게 공포영화를 정치적 의도의 산물로 해석하는 관점은 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질 예술의 무의식적 카타르시스-해소 기능을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정화-순화로 탈바꿈시킨다.

그는 공포영화를 하나의 무의식적 욕망의 미장센(연출)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라플랑슈와 폰탈리스의 환상 이론을 수용한다. 즉 “주체는 판타지 안에서 ‘고정된 위치’를 점하지 않고 젠더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주체의 위치를 취할 수 있다”(287). 이것은 공포영화 속에 나타나는 형상이나 서사구조에는 주체의 ‘상상계’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주체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 양상이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표면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의 젠더 담론 속에서, 주체의 무의식적 판타지가 작용하는 공포영화는 이데올로기의 단일한 정치적 전략 차원으로 환원되어버린다. 무의식이 젠더의 정치 사회적 명분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성과 물형상에 무의식적 판타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공포영화를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기획’의 산물로 재단하고 이것을 다시 ‘팔루스’중



심의 정신분석이론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 이 당혹스런 태도는,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상이한 차원의 논의를 단계적으로 밟지 않고 한 공간에 뒤섞는 방법상의 오류 혹은 미숙함에서 비롯한다.

분명, 정신분석 이론에는 여성주의 연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크리드가 이 책의 일부에서 시도한 여성 비하의 무의식적 배경 분석이 그것이다.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 배경을 파헤침으로써 여성 젠더에 대한 부당한 인식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폭로하는 것인데, 프로이드는 매우 일찍부터 여성 멸시의 근본 원인이 ‘거세 공포’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여성 이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프로이드에게 여성 제자들의 연구는 큰 영향을 끼쳤다. 이것 또한 여성주의 연구라 할 것이다.

크리드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를 주저한 점도 실은 여성주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라캉은 프로이드의 ‘거세’ 담론이 자칫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 의존하는 것처럼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프로이드의 이론 틀을 재건축했다. 프로이드는 ‘남근기’의 성차이의 문제에서 부각되는 ‘거세’ 불안에서 출발하여 어머니와의 관계 전반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거세 콤플렉스(복합)’의 개념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팔루스’의 심적 가치를 상징하는 ‘작은 것(das Kleine)’들 사이의 등가방정식(아이=젓기슴=대변=페니스)을 세웠다. 라캉은 그 모든 ‘거세’ 국면을 단번에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단절’이라는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정리하고는 ‘팔루스’를 ‘욕망의 기표’로 정의한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 거치는 오이디푸스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양성 모두가 동등하게 ‘거세’의 율법 아래 위치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념 도구가 된다. 크리드는 이 점을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정신분석 이론 정리에 논의가 집중될

때에는 어조가 약간 흔들린다는 느낌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신분석 ‘거세’ 이론에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이것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세’ 율법의 집행자인 ‘상징적 아버지’를 정점으로 하는 ‘상징계’ 이론이 결국 어머니를 반문명의 위치로 전락시키고 ‘거세자’로서의 능동적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을 가로지르며 일관되게 반복되는 질문은 ‘여성은 거세되었는가 아니면 거세하는가?’로 요약된다. 크리드가 안고 있는 이론적 허점은 개념상의 혼동에 있다. 먼저, 어머니/여성의 몸에 페니스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남근적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부터, 즉 ‘거세 현실’이 부각되는 순간부터 아이에게서 ‘거세 불안’이 출현한다는 사실이 망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결부된 이 ‘거세’ 개념과,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단절’이라는 라캉의 ‘거세’ 개념이 분석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채, 혼재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아이의 관심이 페니스의 유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거세 불안은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고, 이것은 성 정체성 결정의 문제이며, 저자가 문제 삼는 페티시의 형성 과도 관련이 있다. 무의식에 혼적으로 남아있는 유아기의 성 이론에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여성주의가 정신분석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후자의 경우는 아버지의 법이 아직 개입되지 않은 이자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대타자’로서 아이를 자신의 부분으로 소유하는 불평등한 관계에 관련되어 있으며, 아이가 자율적 욕망 주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계 단절이 문제된다. 여기서 ‘거세’는 (어머니의) ‘팔루스로 존재하기’에서 아버지의(혹은, 처럼) ‘팔루스를 소유하기’로의 주체의 위치이동을 말하며, 이러한 ‘상징계’로의 이동은 ‘상징적 아버지’의 법에 의해 명령된다. 이렇게 볼 때, ‘상징적 거세’, 즉 ‘어머니-

아이의 관계 단절'은 '팔루스적 어머니'의 거세, 다시 말해 아이가 자율적인 주체로서 사회화되기를 방해하는, 아이를 소유하려는 '욕망하는 어머니'의 '거세'를 의미한다. 관계의 단절을 거부하려는 욕망이 아이와 어머니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적 주체로 나아가야 할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유혹과 욕망이 위협과 위기가 되며,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공포로 얼룩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두 개념의 혼동은 자율적인 욕망 주체로서의 '여성'과 주체의 무의식에 거주하는 '상상적 어머니'와 현실 속의 어머니의 혼동을 야기한다. 크리드는 애초에 '여성'은 페니스와 대립되는 질을 갖고 있고 결코 거세된 것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인식에서 여성의 몸이 비하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피물의 형상 속에서 '거세하는 어머니'라는 상상적 어머니를 보았고, 이때부터 ' 여성은 거세된 것이 아니라 거세하는 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능동적인 여성'/'거세하는 어머니'의 껍대기가 일단 이뤄진 다음, 한편으로는 성인의 성적 환상에나 존재하는 '이빨달린 질'이 '집어삼키는 자궁' 혹은 '거세하는 어머니'와 혼동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세하는 어머니'라는 상상적 형상에 능동성을 부여하며 '상징적 아버지'의 법과 동등한 수준의 '권위'를 부여하려 한다. "거세하는 어머니의 판타지와 어머니가 법과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가능성"(300)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팔루스적 어머니'의 상상적 위력이 법으로써 아이를 지배하는 한, 자율적인 주체는 없다.

물론, 현실 속의 어머니는 아이를 훈육하고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는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계' 법질서에 편입된 여성주체의 몫이며, 크리드가 차용한 크리스테바의 '어머니의 권위'가 이 차원에서 이해된다. 이 어머니는 아이의 무의식이 빚어낸 상상적 인물, '거세하는 어머니'와 다르다. 어머니는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관계는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부터 시작한다. 이때 태줄은 이미

잘렸고 자궁도 텅 비어있다. ‘어머니’의 욕망은 그 텅 빔의 ‘결핍’에서 생성되며, 그 현실을 부인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이 ‘팔루스적 어머니’를 만든다. 현실 속의 어머니는 무의식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 자신이 의식적인 담론 너머로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아이에게 보내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는 자신의 욕망으로 그 수수께끼를 해독하면서, 환상을 통해 ‘팔루스적 어머니/여성’의 무의식적 본형을 그 나름대로 만든다. 이렇듯, ‘팔루스적 어머니’는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끈끈한 관계에서 생성된, 양자의 무의식 속에 각각 존재하는 무의식적 욕망의 산물이다. 각기 독립된 주체로 살아야 할 어머니와 아이 모두에게 ‘팔루스적 어머니’의 욕망은 위협하다. 물론, 아이를 잉태하고자 하는 ‘여성주체’의 욕망은, 젠더이든 무의식이든, ‘여성의 성’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항하는 크리드의 논리는, 어떤 유보도 남기지 않는 그의 단호한 어조만큼이나 무리가 있다. 정치적 주장이 강력히 침투된 그의 정신분석적 관점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로 인해 그의 직관은 빛이 바래버렸다. 이 책이 출판된 지 15여 년이 지난 뒤,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에서 그는 자신의 주된 공격 대상이었던 정신분석 이론체계에 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분명, 남성들의 여성혐오를 해부하려는 그의 여성주의적 시도는 관심을 끌 만하다. 그러나 그의 정신분석 이론과의 관계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맺어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

마지막으로, 번역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하겠다. 먼저, ‘self’가 ‘자기(혹은 자신)’ 대신 ‘자아(ego)’로 번역되고, ‘팜프 카스트라트리스(femme castratrice)’가 ‘팜프 카스트리스’로 축약되는 등의 적절치 못한 용어선택을 지적하겠다. 서두른 흔적이 역력한 번역은 가독성에는 무리가 없으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